

# “삶의 버킷리스트 점검하다 무작정 창작에 뛰어들었죠”

2024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 신인작가 3인 인터뷰

유재연 소설가 “나도 이런 당선 전화 받는구나’ 감사했다”  
엄지인 시인 “시 쓰면서 더 나를 알아가고 함께 성장할 터”  
정화영 동화작가 “계속 습작하며 작품 수 늘렸던 게 큰 도움”

문학출판계 새해 가장 관심이 있는 소식은 바로 ‘신춘문예’다. 주요 일간지 신춘문예 부문별 당선작이 발표되면 문학청년을 비롯해 문학애호가들, 독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과연 올해는 어떤 신인이 신춘문예 당선 영예를 안았을까 라는 궁금증 때문이다.

기자는 2024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3명의 신인 작가들과 얼마 전 전화와 지면으로 인터뷰를 했다. 유재연(소설), 엄지인(시), 정화영(동화) 세 신인들에게 신춘문예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는 기쁨과 함께 문학의 길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등이 엮였다.

유재연 소설가는 당선 소식을 묻는 질문에 “당선 전화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뜻밖이었다”며 “놀랍고 감사했는데 ‘나도 결국은 이런 전화를 받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엄지인 시인은 “오후 늦게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전화가 왔는데 가족들은 저보다 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며 “행운에 익숙지 않아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당선 통보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화영 동화작가는 “뒤편까,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며 “어렸을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도깨비방망이가 내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소원을 말해봐!’라고 소리치는 것 같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감에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다. 오래 전부터 신춘문예에 대한 꿈을 품고 도전을 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이 먼거였고 그 다음 삶에 입문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없이 책만 읽는 아이였으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인생은 돼지 똥밭’이라는 그림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돼지가 힘있게 언덕을 올라갔는데 꼭대기에서 돌부리에 걸려 데굴데굴 굴러 떨어지는 내용이었죠.”(유재연)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위해 달려온 저 자신에게 무언가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일기 쓰기를 좋아하고 성탄 카드를 보낼 때도 시를 써서 보내던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생오지문예창작촌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 창작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엄지인)



유재연 소설가

예요. 위기 상황에서 삶의 버킷리스트를 점검하다가 무작정 동화의 세계에 뛰어들었으니까요”(정화영)

그러나 열망만으로 창작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문학은 모티브와 사유, 글쓰기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결실의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재연 소설가는 어느 때 “과연 죽기 전에 소설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럴 때마다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자격증 공부하듯 하자’는 마음을 가졌다”며 “성공과 실패에만 연연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타일렀다”고 언급했다.

엄지인 시인은 주위에서 ‘언제 등단하느냐’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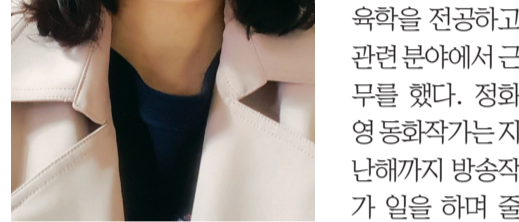
어볼 때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서글픔을 느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 최종심에서 두 번이나 탈락했는데 문운이 나를 스쳐 가지만 하는 것 같아서 그 순간에는 실망스러웠다”며 “합께 공부를 하던 선생님 한 분이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떠나셔서 너무 힘들었다”고 부연했다.

정화영 동화작가는 ‘아동문학 작가 교실’에 다니며 습작을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합평 수업을 위해 단편을 처음 썼는데 그 순간 ‘그냥 써야겠다. 뭐라도 써야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렇게 쌓여가는 작품들은 놀랍게도 저에게 많은 용기와 영감을 줬다”고 했다.

3명의 신인 작가들은 창작활동 외에도 저마다

나름의 사회활동을 했다. 유재연 작가는 헬스케어 이니, 피부관리사 등 다양한 사회 경력을 쌓았는데 소설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엄지인 시인은 대학에서 교 육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했다. 정화영 동화작가는 지난해까지 방송작가 일을 하며 줄곧 글과의 끈을



엄지인 시인



정화영 동화작가

별고, 명상도 하셨습니다.”(유재연)

“메모장에 적어둔 시의 재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오래 시를 쓸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이구요”(엄지인)

“쓰다 말았던 작품, 새로 쓰려고 준비 중인 작품, 결론이 없어 구멍 난 작품. 제 서랍에 들어 있는 이야기들을 완성하고 싶어요. 운이 좋으면 출판돼 세상에 나올 수 있을 테고, 부족하면 다시 서랍 안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요.”(정화영)

한편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4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박물관 내 문화교육실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클래식으로 즐기는 여류 ‘오티움 콘서트 1’

광주시향, 2월7일 예술의전당

‘한가한 틈’을 의미하는 라틴어 오티움(Otium)은 망중한의 즐거움을 연상시킨다. 바쁜 일상 속, 음악으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음악회가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오티움 콘서트 I-Classical’을 오는 2월 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고전시대 음악가 살리에리, 하이든을 비롯해 모차르트의 작품을 광주시향 홍석원 예술감독의 해설을 곁들여 감상할 수 있다. 트럼펫팀 정태진이 광주시향과 협연할 예정이다.

정태진은 서울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를 거쳐 동 대학 석사논문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원코리아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등에서 객원 수석 주자로 활동 중이다.

공연의 막은 살리에리의 오페라 ‘베네치아의 정기시장 서곡’이 연다. 고전시대의 현악기 위주 악기



작년 오티움 콘서트 진행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편성으로 무겁지 않은 분위기의 작품이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은 트럼펫팀 정태진이 협연한다. 속주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작품의 마지막 악장은 ‘오징어 게임’ 등에 삽입되면서 알려져 있다.

‘모차르트 교향곡 38번 프라하’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1786년 프라하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대성공하자, 프라하에서 초청받은 뒤 모차르

트가 직접 지휘하며 초연했던 곡이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코믹 오페라부터 모차르트의 미뉴에트가 없는 유일한 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음악의 선율로 ‘힐링’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석 2만 원, A석 1만 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한겨울 田 그림모내기

정명숙 초대전  
31일까지 브리티 갤러리



‘대나무 잎사귀는 색이 되어 쌓여간다’

한겨울 ‘그림모내기’가 명명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구 농성동 브리티 갤러리(대표 김태희)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정명숙 작가 초대전 ‘田, 그림모내기’전.

주제가 말해주듯 작가는 그림 그리기는 행위를 농사라 상정한다. 사실 그림 그리기뿐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노래를 읊조리는 것도 일종의 농사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농사에 해당한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무엇인가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농사에 해당한다.

정 작가의 ‘그림모내기’전에서는 자연 풍경, 시골 모습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출품된 20여 점의 작품 가운데는 풀잎, 대나무 잎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다수다.

작가는 “광주에 살다 화순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색을 보게 되었다”며 “이전에는 내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그렸다면 이사를 온 이후로는 자연에서 느껴지는 색 그대로를 표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림 전시를 준비하면

서 시골 농부들의 모내기 준비 과정을 떠올렸다”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농부들의 모내기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대나무 잎사귀는 색이 되어 쌓여간다’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햇빛을 그린 작품이다. 빛의 효과로 잎사귀마다 다르게 표현된 밝음과 어둠이 이채롭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잔설이 햇빛에 미려하게 영겨 있는 모습 같기도 하다.

또 다른 시적인 제목이 돋보이는 작품 ‘여린 초록 사이사이로 파아란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다’는 초록 잎에 투영된 하늘의 이미지를 초점화한 것이다. 파란 하늘과 푸른 잎이 한데 어울려 있어 어디가 하늘빛이고 어디가 초록빛인지 구분할 수 없다. 푸름과 파랑이 절묘하게 뒤섞인 색은 그렇게 신비의 아우라를 선사한다.

한편 김태희 대표는 “이번 전시는 미래의 셀러블리티 작가를 발굴해 작가적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작가와 관객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희경루 복원 기념 백일장’ 대전 글꽃초 장서울 군 대상

지난해 복원된 ‘희경루’는 조선시대 ‘동방제일루’로 칭송받던 만큼 광주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유명했다. 관리들의 교류와 교육,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된 공간이었다.

광주문화재단은 얼마 전 희경루 복원과 관련 백일장을 열었다. 희경루 복원을 축하하고 희경루 준재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취지였다.

희경루 백일장 결과 대상에 대전 글꽃초 6학년 장서울 군이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마스크 벗는 날’.

심사를 맡은 시인인 정양주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며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꾸밈없이 쓴 글을 대상으로 뽑았다”며 “모든 작품이 수준이 높았으며 글 속에

자신의 마음이 잘 들어있고, 차분하게 쓰고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통영초등학교 1학년 장서현 양 등 4명, 우수상에 광주 월봉초교 김도준 군 등 10명, 장려상에 광주 수완초교 5학년 장지민 양 등 15명이 차지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는 분들에게도 전염되기를 바란다”며 “희경루 백일장에 참여해준 전국 모든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